

(1)

순구가 제 손에 들린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고 정화 쪽으로 살짝 밀어둔다.

순구 : 어찌죠, 요즘은 물건을 안 사요.

정화 : (인상을 살짝 찌푸리며)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

순구 : 물건을 안 받아요, 요즘은.

정화 : 왜요...?

정화가 간절한 표정으로 순구를 바라본다. 정화를 보고있던 순구가 허허, 하고 웃음을 터뜨린다.

순구 : 아니 그러는 손님은, 이게 어떤 반지인데 팔려고 가져왔어요?

정화 : 몰라요, 그냥 있던 거 끼고 다녔던 건데... 돈이 좀 될까 싶어서 가져왔어요.

순구 : (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한 후) 돈이 필요해요? 왜요?

정화가 한참 뜬눈을 들이다 시선을 살짝 돌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본다. 다시 머뭇거리다 부끄러운 듯 조용히 웃는다.

정화 : 사실 누구 선물을 좀 사려고...

순구는 정화의 답을 듣고 뭔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한참 동안 답이 없다.

(2)

순구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. 정화가 순구에게서 뒷걸음질을 친다. 순구가 정화에게 다가서지만 둘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.

순구 :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.

순구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정화는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치다 몸을 돌려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간다. 그때 순구가 소리치듯 말한다.

순구 : 11월 26일, 맞지요? 아마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이었을 거예요.

정화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멈춰선다.

순구 : 당신은 멋들어진 양복 한 벌을, 나는 1년을 넘게 늦어버린 반지 한 쌍을...

정화가 다시 몸을 돌려 순구를 바라본다. 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혼란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리는 정화. 순구는 애써 웃어보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.

순구 : 어찌나 고맙던지.

순구가 천천히 정화에게 다가온다. 순구가 조심스럽게 정화의 손을 감싸쥐는다.

순구 : 정화 씨. 반지는 잃어버리지 말아요.